

배포 일시 2026. 4. 17. (금)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이윤상 사무처장 010-5815-1696

[기자회견] 전략지역 탈환의 선두에 푸른 옷의 20대 청년이 서겠습니다!

- 전국대학생위원회, 중앙당 ‘반반지원단’ 환영...전략지역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청년대학생이 먼저 앞설 것.
- 지역주의·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정치 변화와 일하는 지방정부 구축의 선두에 20대 청년이 설 것
- “더 큰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자” ... 전략지역 집결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2026년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반반지원단’ 출범을 환영하며 전략지역 중심의 청년 연대를 제안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윤상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처장,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주경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이 참석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략지역 탈환의 선두에 푸른 옷의 20대 청년들이 서겠다” 며 “가장 험난하고 치열한 곳으로 향해 당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기회를 달라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당에 청년들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일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주경민 대구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당이 제안한 ‘반반지원단’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전략지역의 후보자들의 곁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함께 뛰며 더 큰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며, “청년의 힘으로 구태스러운 지역주의를 우리 세대부터 완전히 타파하고 일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고 밝혔다.

끝.

붙임. 기자회견문

붙임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만29세 이하 대학생과 대학원생 당원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오늘, 다가올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굳은 결의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열망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지금, 우리 20대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어 전장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지역 탈환의 선두에 푸른 옷의 20대 청년들이 서겠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험난한 곳, 그리고 가장 치열한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들과 선배들이 지켜오셨던 민주당의 깃발이 외롭게 흔들리던 그곳으로 우리 청년들이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협지를 승리의 성지로 바꾸는 ‘푸른 물결’이 되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오랫동안 지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 가로막혀 있었고, 이 견고한 성벽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지역'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망령된 지역주의의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낡은 갈등의 구도를 우리 20대 청년들이 앞장서 깨뜨리겠습니다. 케케묵은 지역주의 논리가 아닌,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 비전의 장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푸른 옷이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각지에서 '희망의 색'으로 인식될 때까지, 편견의 벽에 몸을 던져 균열을 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이 직접 만드는 일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취업난, 주거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 청년들은 인프라 부족의 문제까지도 한번에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는 가장 밀접한 정치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서 나아가, ‘일하는 지방정부’를 청년의 손으로 직접 설계할 기회입니다.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 그 위대한 과업의 중심에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출범 이래, ‘기회를 달라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얼만큼 당에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끝을 지방선거 승리로 장식하고자 합니다. 외로운 지역에서 홀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오셨던 당원동지들의 손을 맞잡고, 당을 위해 마지막을 불태운다는 각오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봉 건 우

사랑하는 전국의 청년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예전과 다릅니다.

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같은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긴 적보다 진적이 더 많아도 끝내 당기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동네에서 파란 점퍼를 입는 것만으로도 눈총을 받던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 명절 밥상에서, 시장 통에서, 골목 어귀에서 왜 아직도 민주당이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 이름 모를 당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원에서 굳세게 버텨주신 당원 여러분,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를 악물고 서계신 당원 여러분, 대구·경북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당을 지켜오신 당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과 삼킨 눈물 위에서 지금의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 투쟁하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험지라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을, 숫자 따위로 설명되지 않는 고생을, 묵묵히 견디느라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중앙당의 반반지원단 출범 의의를 적극 받아들여, 이번 지방선거가 여러분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관망하며 박수치고, 사진 한 장 남기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골목에, 그 뜨거운 거리에, 직접 가서 여

러분과 끝까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전국의 20대 청년 동지 여러분, 이미 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을, 끝내 승리로 바꿔내는 ‘딱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결’입니다.

푸른 옷을 입고 강원으로, 부산·울산·경남으로, 대구·경북으로 와주십시오. 민주당의 전략지역으로 모두 신속히 모여주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와주십시오. 멀리서 응원하는 사람으로만 남지 말고 가까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곳곳에 전해주십시오.

지역주의가 너무 오래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았고, 패배주의가 너무 오래 정치를 주저앉혀 놓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낡은 질서를 물려받는 세대가 아니라, 여기서 그만 끝내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의기로 똘똘 뭉쳐, 구태 지역주의의 시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세대에서 완전히 종결시킵시다. “원래 안 되는 곳”이라는 체념과 싸웁시다. “해 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와 싸웁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단순히 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푸른 옷을 입고 전략 지역 탈환의 선두에 함께 서주십시오.
손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라고 믿고 지난 2024년 출범 이후 줄곧 전국을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대선 시기 전국을 돌며 각 지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경청하였고, 이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그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그간 쌓아온 현장의 목소리를 동력 삼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지역 탈환'이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전국을 누비며 확인했던 변화의 씨앗을, 이제는 승리의 꽃으로 피워낼 차례입니다.

편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각자의 연고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당의 승리가 절실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한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강한 곳은 더 강하게, 어려운 곳은 끝내 이길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외롭게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오신 선배 동지들의 거친 손을 맞잡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전장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잡은 손이 전국을 푸른 물결로 덮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개를 믿습니다. 험지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싸움, 구태 지역주의의 벽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험지 탈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냅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